

전국 최초 ‘개별 주거형’ 장애인시설 문 연다

51억 투입... 내년 4월 운영 개시·수탁기관 이번 주 모집
1~2인 전용 공간 제공... 독립형 주거서비스 모델 첫 도입
자립·건강관리·사회활동 연계까지 지역 기반 지원체계

제주에 전국 최초로 시설 입소자에게 맞춤형 개별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공공형 장애인 거주시설이 제주시 구좌읍 일대에 조성된다. 특히 이 시설은 제주에서 처음 시작해 전국 확산을 기대하는 새로운 장애인 주거복지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제주시는 구좌읍 덕천리 일대에 짓고 있는 ‘제주시 공공형 장애인 거주시설’이 이달 준공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총 사업비 51억700만원(국비 17억5000만원 포함)을 투입한 시설은 지상 1층, 연면적 871㎡, 6동으로 조성 중이다. 이 시설은 기존의 집단형 공동거주시설과 달리 각 입소자에게 맞춤형 개별 공간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독립형 주거서비스 모델로, 주거와

일상생활 지원, 사회 참여 등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시설 정원은 30명이다. 입소 대상은 거주시설 입소 대기자 중 서비스지원 종합점수가 120점~239점인 발달장애인이다. 입소자들은 1~2인실 침실을 사용하게 된다. 시는 내년 4월쯤부터 시설 운영에 들어갈 계획으로, 운영을 맡을 수탁기관을 4일부터 오는 10일까지 모집한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5년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주사무소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정관상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된 목적사업 또는 주요 사업이 명시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이다.



제주시 구좌읍에 장애인에게 독립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공공형 장애인 거주시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들어선다. 사진은 시설 조감도. 제주시 제공

수탁기관은 장애인 개개인에 독립적 주거공간 제공은 물론 건강관리, 직업·사회활동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총괄하게 된다. 또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기관과 협력해 장애인의 자립 역량 강화, 권익 증진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은 제주시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관련 서류를 갖춰 제주시 장애인복지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박효숙 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제주에서 처음 시작하는 공공형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에 전문성과 열정을 갖춘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문의 728-2552. 문미숙기자 ms@ihalla.com

도, ‘국가유산 방문의 해 프로그램’ 8개월 진행 25만여 명 참가... 스탬프 투어 ‘호응’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3월부터 8개월 간 진행한 ‘2025 제주 국가유산 방문의 해’ 프로그램에 총 25만 6535명이 참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또 이 기간 한라산 모세왓, 제주칠머리당영등굿행사 등 제주 유형·무형 유산 방문객은 약 445만679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민과 국내외 관광객에게 제주 유산을 알리기 위해 도와 국가유산청이 협력해 기획한 이 프로그램은 3월 28일부터 11월 16일까지 제주의 문화·자연·무형유산 100곳을 중심으로 ‘제주의 꿈’, ‘제주의 자연’, ‘제주의 사람들’, ‘탐라순력’ 등 계절별 4개 주제로 운영됐다. 특히 유산을 방문해 인증을 받는 스탬프 투어가 큰 호응을 얻었다. 리플릿과 온라인 인증 프로그램 참가자는 12만3966명으로 집계됐다. 유산 10개 이상을 탐방해 인증받은

완료자는 6567명이었다. 349명은 100곳을 완주했다. 특히 도의 참가자가 70% 이상으로 제주 유산을 통해 관광 수요가 창출됐다. 참가자 만족도도 높아 만족 비율이 92%에 달했다. 또 프로그램 기간 원도심 제주 국가유산 방문자센터에도 총 1만 8740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시는 4일 제주웰컴센터에서 2025 제주 국가유산 방문의 해 성과공유회와 토론회를 열어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고종석 세계유산본부장은 “이번 방문의 해를 통해 제주 국가유산의 잠재력을 확인했다”며 “성과공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2026년에는 더 발전된 유산 활용 프로그램을 추진해 지속가능한 제주형 유산관광모델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공공 농업용 지하수 관정 40공 사용 연장 취수 허가량은 이용량 감안해 종전보다 7.8%↓

제주시는 올해 유효기간(5년)이 만료되는 농업용 지하수관정 40공에 대한 사용기간을 연장한다. 취수 허가량은 이용량을 감안해 7.8% 감량 조정했다. 시는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중제주(아라, 오동, 오라, 도두)와 동제주(화북, 삼양, 영평, 봉개, 웅강, 월평) 유역 농업용 관정 40공의 사용기간을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사용기간 연장을 위해 제주시는 총사업비 3억6000만원을 투입해 지난 2월부터 이들 관정에 대한 지하수 영향조사를 실시했다. 관정 주변의 영향범위와 포획구간을 예측·분석하고, 지하수 고갈 가능성과 수질 오염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고, 그 결과는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분과위원회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연장허가 심사에 반영됐다. 문미숙기자

시는 지하수 관정 사용기간을 연장하면서 중제주와 동제주 40공의 공공 지하수 관정의 취수 허가량을 기존 월 84만240㎥에서 77만5120㎥로 7.8%(6만7280㎥) 감량해 지하수 보전과 합리적 이용을 도모할 방침이다. 18공은 감량하고, 7공은 증량, 15공은 현행 허가량을 유지한다. 시는 앞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취수 허가량 현행화 처리지침’에 따라 허가량을 조정할 계획이다. 지침은 최근 3년간 월 최대 이용량이 취수 허가량의 80% 미만이거나, 월 평균이용량이 취수 허가량의 60%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허가량을 감량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총사업비 10억8000만원을 확보해 2026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조천, 구좌 유역 108공의 농업용 지하수 관정에 대한 영향조사를 거쳐 기간연장 허가를 받을 계획이다. 문미숙기자

제주 ‘AI 기반 농업 정책’ 전국에 선포

3·5일 정부혁신 박람회
제주DA 플랫폼 등 홍보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부터 5일까지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리는 2025년 정부혁신 박람회에 참가해 전국 최초 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농업 통합 플랫폼 제주DA(Digital Agriculture)를 선보인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AI × 정부혁신=국민 행복2’를 슬로건으로 정했다. 제주도는 ‘성장하는 지역’ 부문에 참가해 제주DA의 혁신 성과를 알린다. 제주DA는 경험 중심의 전통 농업을 과학적 예측과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 체계로 바꾸는 플랫폼이

다. 대내외 기관·부서의 농업 데이터 34종을 표준화해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농업인에게는 전용 앱과 웹(Web)으로 농지별 생육, 병해충, 기상, 보조금 등 12종의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이 플랫폼은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위치 기반·음성 인식 기술을 적용했다. 영농일지를 자동 기록할 수 있고 주변 농가와 경영 성과도 비교 분석할 수 있다. 제주시는 제주 전시관에 가상현실(VR) 기반 ‘스마트 감귤 따기 체험’ 공간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관람객이 제주의 농경지와 감귤 수확 과정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3일 ‘정부혁신 박람회’ 첫날, 제주도는 농업 플랫폼 ‘제주DA’를 선보였다. 제주시 제공

“국치 썰으려던 애국선구자 기리며”

6일 조선태 집의계 경모식

제주시 오라동은 오는 6일(오전 11시) 연미마을 조선태 일원에서 ‘제13회 조선태(朝雪臺) 집의계 애국선구자 경모식’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경모식은 조선의 독립을 위해 항일운동에 나섰던 집의계 애국선구자 12인의 뜻을 기리고, 그 정신을 지역사회와 함께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집의계는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조선의 자주를 지키기 위해 뜻을 모았던 항일 의병운동 조직이다. 유학자 이용호를 중심으로 12인의 젊은 유림들이 연미마을 망곡단에

모여 ‘조선의 수치를 씻겠다’는 굳은 의지를 다지며 ‘조선태’라는 글귀를 바위에 새겨 항일 의지를 세상에 알렸다. 조선태경모식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행사는 애국선구자 후손과 가족, 지역주민이 참석해 식전 공연으로 안중근 의사의 정신을 노래한 ‘장부가(丈夫歌)’ 국악기공 무예 공연과 카이노스 청소년 뮤지컬 공연단의 애국 퍼포먼스 무대가 펼쳐진다. 이어 경모사, 헌시 낭독, 집의계 12인의 항일 구국 정신을 재현하는 퍼포먼스를 통해 역사적 순간을 되새긴다. 오라동은 조선태 경모식을 2013년부터 매년 12월 첫째주 토요일에 개최하고 있다. 문미숙기자

제주특별자치도백혈병소아암협회

사랑나눔 랜선바자회

백혈병·소아암 및 난치병 환아들을 위한
사랑나눔 바자회 현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날짜 2025.12.19~12.21(3일간)

시간 AM10:00 - PM18:00

장소 이름갤러리 (제주시 일주서로 7827-1)

바자회 수익금은 환아들을 위한
지원사업에 전액 사용됩니다.

온라인주문 | 11.19~12.21

행사 및 문의 064-752-3300 | FAX 064-752-3303 | Email jejubh16@daum.net

주최/주관 | 제주특별자치도백혈병소아암협회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쿨고리!

쉬운 높이조절

쉽게 높이조절되는 쿨고리

쿨고리 재사용해 매달은 모습

쿨고리 작업세트 구성

쿨고리 + 안파고정판 + 안파밴드 = 쿨고리 작업세트

쿨고리+고정판+안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쿨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다인산업(주)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

매달기작업 일손을 줄이고 싶으신 분!
더울 때 작업을 줄이고 싶으신 분!
**한번 매달면 몇 년이 속편한,
다인‘쿨고리’가 있습니다!**

쿨고리의 장점

1.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확 줄어듬→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체구입비 회수가능
2. 쿨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 가능.
3. 쿨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4.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5. 수확 후 회수도 간편.